

# 9월호

## Contents

|                             |    |
|-----------------------------|----|
| 11차 집단LP 영화관람 "엔트맨"         | 2  |
| 2015 중증장애인 인터넷 재중도 연수       | 4  |
| (책임감) 생일 축하합니다 ♪ 생일 축하합니다 ♪ | 6  |
| 8월 15일 광화문을 다녀오다.....       | 8  |
| 아맹센터 시각장애인 기자회견             | 10 |
| 여성장애인과 결혼                   | 12 |
| 장애인과 우울증                    | 14 |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녹아 든 영화          | 16 |
| 이달의 정보                      | 18 |
| 장애인파파라시                     | 20 |
| 이달의 시                       | 22 |
| 외환게임                        | 23 |
| 광고                          | 24 |



# 11차 집단ILP 영화관람 “앤트맨”

전난희



지난 9월 10일에 가졌던 집단자립생활 기술훈련(이하 집단ilp)에서는 마블시리즈에 하나인 “앤트맨”을 관람하였다. 영화 상영시간이 오후 1시 20분이라서 간단히 햄버거와 콜라로 점심을 해결하고 서로서로 안부도 전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영화 상영시간이 되기길 기다렸다.

우선 영화의 스토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아빠 - 딸 바보인 스콧 랭(배우 폴 러드)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스콧 랭은 악덕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자 그의 회사 보안시스템을 해킹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눠주고 그를 골탕 먹인 대가로 교도에서 복형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부터 등장한다. 슈퍼히어로가 늘 그렇듯 스콧 랭도 해킹이라는 나쁜 짓(?)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만큼은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냥 한낱 짜질한 좀도둑으로 치부되고 만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스콧 랭이지만 사랑하는 딸을 범좌자란 이유로 그의 전부인은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딸이 그립고 만나고 싶다면 집을 구하고, 구직에 성공하며, 밀린 양육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 말하고 그의 진심어린 마음을 몰라준다.

정의에 이름으로 악덕 기업주를 골탕 먹혔지만, 그는 한낱 범좌자일 뿐. 정의감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그의 진실 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받아줄 직장은 아무데도 없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돈도 필요한 스콧 랭은 다시 범죄에 길로 빠져드는데, 일주일간 집주인이 없는 집





의 지하실에 있는 금고를 터는 것. 하지만 그 곳에는 낡은 슈트만 놓여 있을 뿐 이었다. 집으로 슈트를 가지고 온 그는 슈트를 입고 장갑과 헬멧까지 쓰고 장갑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몸이 개미보다 작아진 그……. 그때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

남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슈트에 주인이기도 한 헝크 핼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이라는 박사였다. 핼 박사는 오래전부터 스콧 랭을 주시해왔었고 일부러 자신의 집을 털게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다. 핼 박사는 입으면 개미보다 더 작아지는 슈트를 입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새로운 앤트맨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헝크 핼 박사가 말하는 악의 무리는 핼 박사가 원자 간의 거리를 조절하여 사물과 생물들의 사이즈를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입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핼 박사는 이것이 상용화되었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그만 두었다. 하지만 핼 박사의 조수였던 대런 크로스가 그 입자를 이용해 ‘엘로우 재킷’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자 핼 박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스콧 랭을 테스트하고 ‘앤트맨’이 되어주기를 부탁했던 것이었다.



아직 ‘앤트맨’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아이언맨 보다 앤트맨이 더 인간적이라고 할까?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이날 집단ILP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다음 집단ILP 행사 때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2015 중증장애인 인턴 제주도 연수

김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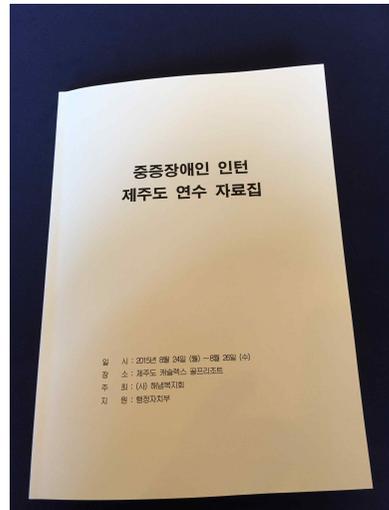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강북자립생활센터 인턴 김소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 연수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몇 칠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뜻 깊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비와 태풍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날씨가 너무 좋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찍곤 하였습니다. 아직도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다 기타 등 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하면 이번 2015 중증장애인 인턴 연수 다녀온 것을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2015년 중증장애인인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해라는 강의를 인권포럼 이응범 국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역사 및 배경 그리고 적용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특별한 개조나 특수설계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대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제품이나 환경디자인을 말하고 이것은 개발과정에서 약자의 참여 보장(인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한국에 시설보다 외국이 더 잘 되어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의 배리어프리 중에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애를 강조하고 은폐하여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특정한계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각 조마다 미션수행 프로그램이 활동했었는데 메이즈랜드 체험을 하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각 조마다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조는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발견된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 다른 한쪽에 평평한 바닥이 보였는데 거기는 휠체어 또는 유모차 기타 등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봉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봉이 2개라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의문이 들었는데 저희 조 조장님께서 낮은 봉이 있는 것은 휠체어, 유모차, 어린아이, 기타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높이를 맞춰있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유익했던 강의, 편안한 숙소, 깨끗한 공기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 제주도 연수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해남복지회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파이팅! 감사합니다.



#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박남주

자립생활주택 가형입주자 정양균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양균씨는 집안에서는 수동휠체어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시다가 생일 케이크이며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코디를 보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침에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드셨으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얼굴에 함박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니 싫지는 않으신 모양입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간 짜장, 짬뽕들을 배달시키고 그린 요거트 케이크를 꺼내 불을 붙이니 거나한 생일상 한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정양균씨~ 생일 축하 합니다~ ”

활보선생님과 안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여자 4명의 꾀꼬리(?) 같은 생일축하송이 끝나고 정양균씨가 또 너털웃음을 터트리시며 케이크 위의 촛불들을 불어 끄셨습니다.



시설에 거주하실 때는 그달에 생일을 맞은 여러 명과 함께 생일파티를 진행하셔서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만의 생일상은 자립생활주택에 오시고 나서 처음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양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볶음밥을 다 드시고 후식으로 그린 요거트 케이크도 한 조각씩 나눠먹고 안선생님께서 사 오신 새 운동화도 신어보시고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있었습니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인 정양균씨는 방문 때 마다 가족과 고향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모라는 분이 종종 연락을 하시고 고향 친구들도 가끔 만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일 때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고 시설에서 그 달에 생일을 맞은 여러 명의 장애인 입소자들과 함께 생일을 치렀다고 하시며 조금 어두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배려심 많으신 정양균 선생님을 칭찬하시며 생일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안선생님도 저도 자원봉사 선생님도 정양균 선생님의 48번째 생일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정양균씨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립생활주택을 나섰습니다. 정양균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진 날 이었습니다.



# 8월 15일. 광화문을 다녀오다...

신건구



올해로 광복 70주년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나는 담당자와 함께 이번 개별ILP 계획에 대해 의논하던 중 내가 광화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스럽게 충격을 받았다.

내 나이 37살 때 까지 변변한 휠체어 하나 없어 집 밖을 나가보지 못하다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점점 나아짐에 따라 수급자에 선정이 되고 처음 받은 수동휠체어에서 이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충분하진 않지만 활동보조인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이토록 피부에 와 닿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불과 10년 안팎이다. 태어난 지 서른여섯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 밖을 알 수 있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나도 장애인당사자로서, 이 나라 대한국민의 국민으로서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화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지하철에 도전하기에는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광화문에 도착하였다. 역시나 광복절이라 그런지 여러 단체에서 광복절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길 가는 곳 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태극기들이 걸려있고 애국가가 간간히 흘러나왔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 이용자인 나로서는 지나다니기가 힘들었다. 초행인지라 장애인화장실 찾기도 어려워 함께 고생하신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고맙고 감

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광화문 방문으로 느낀 점은 광화문 행사를 기  
웃거리고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장애인당사자로서 광  
복절에 임하는 행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 비장  
애인 중심으로 광복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복  
지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애인당사자가 비장애  
인 주류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광화문을 돌아다니다가 허기가 저서 활동보조인 선  
생님과 함께 중국집을 찾아 들어갔다. 둘 다 얼큰하고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짬뽕 두 그릇과 탕수육 작은 그  
릇 하나를 시켜 배부르게 먹었다.

이번 개별ILP는 광복을 주제로 주제와 관련 있고 의  
미 있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광화문 방문으로 그  
뜻을 잘 살린 것 같아 뿌듯하다.

개별ILP에 참여하면서 내향적이던 내 성격도 적극적으  
로 바뀐 것 같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줘  
서 나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오른 것 같다.

다음 체험은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된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이팅!



# “시각장애인 지하철 화장실 이용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허성현



2015년 8월 31일 1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각장애인 지하철 화장실 이용 차별 인권위 진정”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동서울센터)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지하철 내 남녀 화장실 위치 불일치로 인한 시각장애인 화장실 이용 제한 관련 차별에 대

해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일반 시민들에게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었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하여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함께했다.

이 기자회견은 취지발언, 사례발표, 지지발언, 요구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발표 및 지지발언에서 동서울센터 오병철 소장은 “평소 화장실 이용 시 화장실 앞에서 남자가 나오는지 여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면서 작은 점자표지판을 확인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점자표지판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남녀구분이 가능한 화장실 위치기준, 저 시력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는 화장실표지판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는 이와 같은 차별 진정내용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성현 팀장의 대독으로 진행되었다. 그 진정내용에 따르면 동서울센터는 기자회견 전에 장애인생활인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5월~6월 2개월에 걸쳐 지하철화장



실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중 2호선, 5호선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별 설치,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 남녀화장실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하였다. 이 중 남녀화장실 위치만을 우선 살펴보면 2호선의 경우 총 51개의 지하철역에 전체 화장실 92개 중 남자가 왼쪽인 곳이 44개, 여자가 왼쪽인 곳이 36개였으며,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곳이 11개, 남녀구별이 안된 곳이 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5호선은 총 51개 역에 전체 화장실 74개 중 남자가 왼쪽인 곳이 32개, 여자가 왼쪽인 곳이 33개 안쪽 바깥쪽에 위치한 곳이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화장실 표지판의 경우 측면표지판만 설치되어 있고 정면표지판은 부착되어있지 않아 한참을 찾아보아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의 일정한 위치에 대한 기준 마련(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혹은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 등) 눈에 잘 띄는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거리에 상관없이 화장실의 위치, 남녀화장실 위치를 확연히 알 수 있는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의 통일된 기준)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기자회견 후에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서는 마무리 되었다. 이번 시각장애인 장애인 지하철 화장실 이용제한 관련 문제는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서 한계를 느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타 장애유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 하루 빨리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이 이용에 있어 제약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진출처- <http://www.ablenews.co.kr>

# 여성장애인과 결혼

박계형

여성 장애인의 연애와 결혼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의 가치는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는가 하는 협소한 기준이 그 것이고, 두 번째로 사회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전통적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여자들은 능력 없는 배우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장애인 여성이 남성과 연애나 결혼을 통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심리적 측면을 보면 여성장애인이 남성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려 할 때,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방해물(가족이나 친구들에 반대 등 즉 외부관찰자들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장애를 갖지 않는 배우자를 그들 관계에서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타인의 시각도 문제이다. 또 장애를 가진 두 남녀가 부부로 인연을 맺어도 가족이나 사회의 편견의 시선과 문제로 접근성의 문제로 함께 데이트 할 수 있을 만큼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현 정책이 장애인들의 결혼이나 가족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혼 상태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 여성장애인의 경우, 유배우가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별 40.6% 미혼 10.3% 이혼 4.6% 순으로 나타나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여성의 약 9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비교해 보면 유배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별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과 출산의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의 성립이 어려워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여성장애인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인적자원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동원에 있어 불리하며, 이들이 고령이 되었을 경우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재가 여성장애인에 결혼을 보면 사회적 차별정도는 ‘매우 많다’가 32.6% ‘많은 편이다’ 21.3% ‘비교적 많은 편이다’가 10.4%로 여성장애인 전체의 64.3%가 결혼 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혼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장애와 관련하여 과도한 혼수의 요구, 장애를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외도 등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에게는 결혼생활과 가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육아에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인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들 수 있고,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해 모르는 의료진들이 많아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여성장애인이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우생학적 주장과 특정한 피임방법이 여성장애인에게 기능손상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단산의 낭용이 벌어지는 사실과 불임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한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낙태를 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은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여성장애인도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서비스의 욕구는 비장애인과 같지만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다른 점도 많다. 하지만 이 특수한 욕구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이 본인이 양육 하거나 친정 부모 및 시댁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하여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로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시 가장 격심한 어려움은 자녀의 심리적 위축(34.1%), 부모역할 부족(30.4%)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23.9%)로서, 물리적이고 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 때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자녀가 성장하면서는 물리적 어려움에서 자녀의 학교 관련 행사에 참여를 꺼리게 되고, 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등 점차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혼의 여성장애인들은 시댁과의 마찰,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감, 가사에 따른 부담 등을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들은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직계가족, 주변사람, 친척, 이웃들의 편견으로 결혼 이후에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여성장애인의 자녀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사회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여성장애인 스스로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장애인 복지론」 (학현사)

정무성외공저 「현대장애인 복지론」 (학현사)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장애인과 우울증

이하용



사진출처- <http://www.irepublic.kr>

나와 같은 신체 장애인들에게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우울증이란 증세를 한번쯤은 겪고 지나 갈 것이다. 가령 만성신부전증과 같은 질병으로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화가 돼서 자살충동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우울의 정도와 장애의 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가 심하다고 우울의 정도가 깊고 장애가 경하다고해서 우울의 정도가 얕지 않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보다 사회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개인이 하고 있는 기대치의 불균형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중증 장애인의 기대치의 불균형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장애인들 중 66% 가량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왔고 그 중 9%는 자살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과 자살의 충동 빈도를 조사한 통계 자료는 없다. 몇몇 표본 연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우울증과 자살 충

동 빈도가 높다는 보고와 높지 않다는 보고가 서로 상반되어 기재 돼 있고, 장애인이 우울증과 자살 빈도가 높다는 연구는 장애인의 경우 우울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종종 장애인의 경우 의존적 행동이나 연민을 조장함으로써 우울을 강요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우울 정도와 자살충동 간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런 연관관계는 암 환자나 시한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명되어진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환경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생화학적 원인으로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감정조절 기능에 연결이 잘못 되어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고, 또 호르몬 불균형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전적 원인으로는 가족 내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적 원인은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적 원인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울증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재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반면 술이나 담배는 우울증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지만, 우울한 기분이 들 땐 야회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henews&logNo=220336423382>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녹아 든 영화 "미라클 벨리에"

전난희



25일에 본 영화 "미라클 벨리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청각장애인 부모와 남동생과 살고 있는 '폴라'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듣고 말 할 수 있는 소녀이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장과 시장에서 치즈 파는 일을 도우며 그다지 성실한 학교생활은 아니지만 특별히 못한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소녀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폴라'는 학교동아리를 가입하던 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합창반에 들어가게 되는데..그 이유는 바로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합창 부였던 것. 자기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남학생을 보기 위해 얼떨결에 가입하였는데 뜻밖에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음악선생님이 파리에 있는 음악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면 어떨것냐는 제안이 그것이다. '폴라'는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 제안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자기가 없으면 부모님의 농장과 치즈 판매는 누가할 것인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라'는 자기의 꿈도 놓치고 싶지 않고 가족들도 떠나기 싫다.

줄거리를 언 듯 보면 지루하고 우울한 영화일 것 같지만, 영화 보는 내내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아서 웃으며 볼 수 있었다. 유머와 감동.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는 영화





라 할 수 있다.

내가 이 영화가 무척 맘에 들었던 이유는 영화에서 ‘폴라’ 아버지가 시장선거에 출마선언을 하는데 ‘폴라’는 귀가 안 들리고 말 할 수 없는 아빠가 어떻게 시장 선거에 나가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장면에서 ‘폴라’ 아버지는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뿐이지, 장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장애를 토는 장애인을 불쌍하거나 동정해야 하거나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라클 벨리에'는 16살 소녀의 성장 영화 같기도 하지만 부모의 성장영화 같기도 하다. 영화에서 ‘폴라’ 남동생 역으로 나오는 배우는 실제로도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다.



사진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32991>

# 이달의 정보

김소연

##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9월 공연

- 공연명: 『루나사에서 춤을』 (연극)
- 일 시: 2015. 9.23.(수) 17:00(공연시간 90분)
- 장 소: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P동 소강당
- 관람대상: 강북구민 누구나
- 관람료: 무료
- 공연내용: 자전적 가족사를 담은 이야기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의 근원을 회상하게 하는 동시에 물밀듯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치관 혼란을 그리고 있다.
- 공연단체: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
- 주 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 문 의: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과(☎02-920-7825)

출처- <http://www.gangbuk.go.kr>

## 2015 U-City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알림

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시민체감 U-City 서비스 및 민간 수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5 U-City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10.30, 고양 킨텍스)하기로 하고,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35일간) 시민, 전문가, 기업, 지자체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 이번 경진대회는 ‘신규 U-City 서비스’ 부문과 ‘지자체 U-City 우수사례’ 부문, ‘전문가?기업 제안’ 부문으로 구성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국가 U-City R&D(‘13~’18년, 총 200억원) 연구팀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경우 지자체 등에 보급?확산하고, 민간 수익모델은 제안기업 등이 지자체에 실제 구축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할 계획인 바, 새로운 시민체감 U-City 서비스 발굴 및 U-City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응모를 바랍니다.

출처- <http://www.ucityservice.org>

##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 UCC 공모전 개최 안내

서울시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결혼하기 좋은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2. 응모자격 : 누구나(지역·나이제한 없음)
3. 접수기간 : 2015. 9.21(월) ~ 10.20(화)
4. 응모방법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페이지 온라인 응모
5. 시 상 : 총 10개 작품 선정, 상장 및 부상 수여  
※ 수상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자료로 활용 (CD제작 등)

출처- <http://www.gangbuk.go.kr>

###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 지방세 감면 안내

우리 구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8에 따른 것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 감면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3층 미만

#### □ 감면내용: 내진 보강을 하여 내진성능확인 받은 경우

- 건 축: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경감
-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 문의처

- 건축관련 문의: 디자인건축과(02-901-6885~7)
- 세금관련 문의: 세무과(02-901-6482~5)

출처- <http://www.gangbuk.go.kr>

#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잠실 롯데월드 장애인 화장실은 깨끗하고 안전 바도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시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없다.

# 암벽등반

강예신

모든 끝이 정상과 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다는 것은 종종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며 좌절과 만나고,  
극한의 의지와 손을 잡고 본연의 나와 만나게 되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정상의 의미는 사라지고

상다는 행위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것이다.

'춤을 추어라.'

'노래를 불러라.'

'능을 던져라.'

버튼만 누르면, 왕의 광대 부림지 않은 재미난 곡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내가 세상의 광대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춤을  
춰야 한다.

『항벽항벽항벽』 P 252~253

## 15년 9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숙이 김석현 김은순 김용자 김중민 김중환 김재환  
김현실 김태환 곽광현 곽상봉 권윤정 박동열 박민숙 박선아  
박시연 박원배 배소영 손연숙 이광섭 이화선 이영석 이승준  
이영숙 이하용 임상욱 안병훈 안해영 오재준 우의정 예성호  
유수근 유순예 윤두선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최윤숙 최창현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시설에서 지역으로!” 회원가입서

※ 아래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        |                               |                               |   |
|--------|-------------------------------|-------------------------------|---|
| 신청인    | 생년월일(양/음)                     |                               |   |
|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직장 : | <input type="checkbox"/> 자택 :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
| 장애유형   | 장애급수                          |                               |   |
| 집 주소   |                               |                               |   |
| 직장주소   |                               |                               |   |
| 직장명    |                               |                               |   |
| 우편발송   | <input type="checkbox"/> 집    | <input type="checkbox"/> 직장   |   |
| 전자우편   |                               |                               |   |
| 가입동기   |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 <input type="checkbox"/> 매스컴  | <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월 약정 액 | <input type="checkbox"/> 1만원  | <input type="checkbox"/> 2만원  |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 ※ CMS출금이체 동의서(회비 자동이체 신청서)

본인은 CMS 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      |                                  |                              |  |
|------|----------------------------------|------------------------------|--|
| 출금은행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
| 주민번호 |                                  |                              |  |
| 이체금액 | <input type="checkbox"/> 1만원     | <input type="checkbox"/> 2만원 |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만원 |
| 출금일  | <input type="checkbox"/> 매월 25 일 |                              |  |

## 12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농구관람 공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ILP] 농구관람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농구관람 <다 함께 덩크슛에 빠져보아요>
- 일 시 : 2015. 10. 28(수) 오후 7시
- 장 소 : 잠실실내체육관
- 경 기 : 서울삼성 : 창원LG
- 신청방법 : 센터내방, 전화 : 02-908-7776, 팩스 : 0303) 0799 - 1758,  
이메일 : kbcil@hanmail.net
- 센터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 대상선정 : 서울시 거주 장애인(15명 선착순 모집)
- 주 최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후 원 : 서울특별시

신청서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http://www.kbcil.co.kr/>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당일(10월 28일)에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